

전남도, 코로나 시대 소규모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안전관광 국내외 종합마케팅 추진 등산·캠핑 단체 방문 관광자원 소개 웰니스·낚시 등 테마별 상품 운영 여행사 협력 해외여행객에 상품판매

전남도가 코로나19 상황 속 관광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도내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2021 국내외 종합관광마케팅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내 마케팅은 '여행가고 싶은 고향같은 청정 관광 전남실현'에 중점을 두고, 해외 마케팅의 경우 '외국인이 꼭 여행가고 싶은 글로벌 관광

전남도약'이라는 목표로 각각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대표적인 소규모·비대면 마케팅으로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추진한다. 여행사 관계자와 관광객을 초청해 대규모로 이뤄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등산, 캠핑 등 다양한 취미 모임이나 소규모 단체를 방문해 전남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여행객을 위해 개별·소규모·비대면 여행 등 변화한 트렌드에 맞춰 웰니스, 반려동물여행, 낚시 등 새로운 테마별 여행상품 등을 개발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완화 시 전남관광 붐 조성을 위한 하반기 여행상품 수요 증대에 대비해 도내 여행 홍보 및 상품 판매에도 적극 나선다. TV홈쇼핑 입점 판매 및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축제를 활용해 대규

모 관광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백신 상용화에 따라 해외 관광객에 대해선 입국 4대 경로인 인천, 김해, 제주, 무안공항을 이용한 전남 방문 여행상품을 관련 여행사와 협력해 사전 판매한다.

또 해외 현지 국가별 맞춤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류스타·현지 유명인 등을 활용해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를 해외 SNS 및 여행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실제 전남 방문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무안국제공항의 하늘길이 열린 외국인 대상 K-pop 콘서트, 환영행사 등도 추진한다. 문체부, 관광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해 해외 언론 등에 전남관광의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기존 20인 이상 여행객 유치에만 지원했던 여행상품 인센티브를 방역단계 및 관광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4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특히 올해 지속가능한 안전마케팅 전략의 최우선 사항을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안전한 관광에 두고, 이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제공은 물론 관광지 방역 안내자 배치 및 방역소독을 적극 추진한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새로운 일상으로 관광 수요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 할 국내외 관광마케팅 활동이 무엇인지 부단히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광콘텐츠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광객이 일상에 지친 심신을 전남에서 달래고 힐링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상생카드 사용액 2년 만에 1조원 돌파

광주시는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누적 사용액이 1조원을 돌파해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상생카드는 지역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3월 출시됐다. 2019년 863억원, 지난해 8641억원 등 사용액이 크게 늘고 있다.

사용액 모두 광주 소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돼 침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사용 업종별로는 음식점, 유통업, 병·의원, 교육비, 교통비, 이·미용, 여행·취미, 의료·제화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33%, 50대 21%, 30대 17%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북구 27%, 서구 24%, 광산구 22%, 남구 15%, 동구 12% 순이었다.

시는 개인당 월 100만원 사용 시 월 최대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장에는 카드 결제수수료 전액(0.5~1%)을 지원하는 점을 인기 비결로 들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10% 특별 할인을 한다. 광주상생카드는 지난달 기준 총 195만 4972장이 발행됐고 이중 체크카드는 13만 5291장(3938억원), 선불카드는 181만9681장(7098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선불카드에 충전기능을 더해 최초 구매 이후 은행 방문 없이도 충전·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대리 발급도 허용했다.

광주상생카드 사용액 1조 달성 및 발행 2주년을 기념해 운영 대행사인 광주은행에서는 오는 20일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역 특성 맞는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제조업 경쟁력 높인다

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형 소재 부품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육성 계획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실무 총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광주 제조업 중 소재 부품 산업의 생산 비중은 38.7%로 비수도권 평균(45.3%)보다 낮다.

기업도 60여개에 불과해 전국 대비 0.9% 수준에 그친다.

시는 지역 소재부품 전문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소재부품 중심 산업 구조를 강화해 2030년까지 지역 소재부품 생산 비중을 41.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유망 품목을 발굴한다.

시는 3대 선도(대형) 프로젝트 추진,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기업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특화단지 조성, 호남권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이다.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은 연구·개발 과제 기획·지원, 전문기업 발굴·등록 등이다. 기업 지원은 10년간 매년 10개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등록, 총 160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형 소재 부품 육성 계획이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뉴딜, 인공지능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발전에 더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구례 천은사에서 개최된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광역단체장 평가서 다시 1위

9개월만에...리얼미터 조사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높은 평가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다시 광역단체장 주민평가에서 1위로 올라섰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내놓은 정책이 높은 평가를 보이면서 9개월 만에 1위를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월 사·도지사 평가 조사에서 김 지사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66.7%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5월 이후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다.

그동안 1위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5.7%로 김 지사와 1.0% 포인트 차이로 2위로 하락했고, 3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53.9%)가 차지했다. 15개 사·도지사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8.5%다.

김 지사가 9개월만에 1위를 회복한 것은 그동안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반을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도민 일자리를 늘리고, 한국판 뉴딜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달 5일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투어 1호 행사를 열어 48조 원을 들여 원전 8기의 전력 생산량에 버금가는 8.2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12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이익 공유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해 해상풍력 발전사와 제조업체, 지역주민이 동반 성장하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전국 17개 광역·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도는 67.9%를 기록, 22개월 연속 1위를 굳건히 지켰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67.1%, 제주특별자치도 66.1% 순이었다. 전국 광역·시·도의 주민생활 만족도 평균은 56.3%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1월과 2월 전국 18세 이상 주민 8500명(광역·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 시계열 자유분석 기법에 따라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인구늘리기 프로젝트 본격화 전남도, 10개 사업 최종 선정

순천시의 '맥기이버 공유대장간', 보성군의 '청년몰', 구례군의 '로컬다잉 창조 공유 센터' 등 전남의 각 시·군의 프로젝트에 전남도가 20억원씩을 지원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 접수된 12개 사업에 대한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들의 프로젝트에 전남도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빈 점포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취창업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총 400여명의 청년세대 유입 및 정착을 목표로 추진한다.

순천시 '맥기이버 공유대장간 지원사업'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순천에 15명이 정착했으며, 마을 주민도 87%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맥기이버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愼무공**, 육지에는 **鄭愼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총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지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인기리 판매중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5쇄 판매중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최신간 양장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